

이슈브리프 895호
(2026. 9.16)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 평가와 중국·인도의 전략적 경합

제895호

양갑용 jiayong@inss.re.kr



국문초록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는 중국이 브릭스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회의로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AI, 신형 산업화, 금융·무역, 인재 양성, 글로벌 거버넌스 등 경제·기술·제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며 브릭스의 역할을 글로벌 사우스의 발전과 국제 거버넌스 논의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구상이 브릭스 전체의 공동 전략으로 정착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모두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역할 확대와 다극적 국제질서를 지향하지만, 중국이 브릭스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데 비해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국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향후 브릭스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협력체라기보다 중국의 리더십 강화와 인도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전략적 자율성이 조정되는 다극적 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브릭스를 단순한 중국 영향권 또는 반서방 협력체로 이해하기보다 회원국별 이해관계와 중국·인도 간 협력·경쟁에 주목하면서 경제·기술 분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중국·인도 전략적 경합, 전략적 자율성, 브릭스의 다극적 협력체 발전

2026년 9월 12~13일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과 인도 간 관계 변화와 이란 대통령의 첫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국제질서 구상과 브릭스의 느슨한 전략적 연대

이번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두 차례의 연설을 통해 브릭스의 역할과 중국의 구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1단계 회의에서는 ‘시대의 책임과 선봉 역량’을 주제로, 제2단계 회의에서는 ‘브릭스 협력 기반과 글로벌 사우스 역량’을 주제로 연설했다. 특히 제2단계 연설에서는 브릭스를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브릭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발전과 국제질서 개혁에 이바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모디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양국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의향을 표명했다. 이는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독자적인 전략적 공간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의 브릭스 발전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브릭스 전체의 공동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브릭스는 회원국 확대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규모와 국제적 가시성을 높여 왔지만, 동시에 회원국별 전략적 이해관계의 다양성도 확대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브릭스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동시에, 중국의 구상이 브릭스 회원국 전체의 공동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여준 회의로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브릭스 협력 20년을 평가하면서 브릭스가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협력체로서 독립과 자주를 강조하고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집단적 부상이 세계 다극화를 촉진하는 주요 동력이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중국이 이미 GDI, GSI, GCI, GGI 등을 제시해 온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AI와 신형 산업화까지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은 브릭스 협력의 범위를 경제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산업, 국제규범 등으로 확대하려는 방향과 관련해 의미가 있다. 이는 중국이 브릭스를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의 장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기술·제도적 협력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이 제시하는 브릭스의 역할과 비전이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과 중국·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중동 회원국 간에는 지역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브릭스가 모든 국제 현안에 대해 일관된 공동 입장을 형성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뉴델리 공동성명 역시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중국과 인도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쟁의 책임 문제를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브릭스에는 미국과 같이 회원국 전체의 전략적 방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중심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 5개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각자의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며, 중국이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원국들이 중국의 전략적 방향을 자동으로 수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브릭스의 결속 구조는 강력한 중심국이 주도하는 동맹이나 블록보다는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느슨한 전략적 연대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브릭스 내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

브릭스의 느슨한 전략적 연대는 중국에도 일정한 딜레마를 초래한다. 중국은 브릭스를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브릭스 회원국들이 중국의 리더십을 공동의 이해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주요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인도는 중요한 변수이다. 인도 역시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고 있다. 양국은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 등에서 회원국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지만, 인도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다. 인도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중국과 인도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국의 브릭스 내 역할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시각을 비교적 잘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인도가 모두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양국의 공동 책임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인도를 글로벌 사우스의 유일한 대표 국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여론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 간 관계 개선뿐 아니라 양국 국민 사이의 상호 인식과 신뢰를 개선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중요하다는 중국 측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디 총리의 발언에서도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모디 총리는 중국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인도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하며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인도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모디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라는 수준으로 표현한 점은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확약이라기 보다는 향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향 표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경 문제 역시 여전히 양국 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다.

양국 정상의 메시지는 중국과 인도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략적 신뢰가 충분히 형성된 관계는 아니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뉴델리에서 7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한 중국과 인도는 양자관계의 안정과 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둘러싼 경쟁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브릭스 내 협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인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관여 확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브릭스를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이미 GDI, GSI, GCI, GGI 등을 통해 개발, 안보, 문명, 거버넌스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AI, 신형 산업화, 디지털 산업, 스마트 제조,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을 추가적인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외교·정치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기술·산업 분야로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 지점이다.

중국의 이러한 접근은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 간 연계를 경제·기술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단순히 미국에 대한 대응이나 대항 세력의 결집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기보다는, 개발도상국에 경제적·기술적 협력 기회를 제공하면서 중국과의 제도적·경제적 연계를 확대하려는 접근으로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도 역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대표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해 왔다. 인도로서는 중국이 브릭스를 글로벌 사우스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계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중국의 브릭스 구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경제·기술·개발 협력은 활용하면서, 중국이 브릭스의 전략적 방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은 견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중국은 브릭스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브릭스 협력의 제도화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AI·신형 산업화·금융·디지털 산업·인재 양성 등의 의제를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브릭스를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협력과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될지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릭스 내부 동학과 우리의 대응

시진핑 주석은 두 차례의 연설을 통해 브릭스를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AI·신형 산업화·금융·무역·글로벌 거버넌스 등 광범위한 협력 구상을 제시했지만, 회원국들이 해당 비전에 공감하고 이를 공동의 전략으로 수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브릭스는 지난 20년 동안 회원국 확대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 왔지만, 동시에 회원국 간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졌다. 그중에서도 인도는 중국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브릭스 순항의 중요한 변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의장국으로서 회의의 안정적 운영과 회원국 간 합의 형성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이 의장국을 맡게 되면 브릭스 내에서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더욱 직접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경제성장,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국제질서의 다극화 등에서는 협력의 여지가 존재한다. 반면 브릭스의 대외적 성격,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국제규범의 방향, 회원국 확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에서는 양국 간 견해 차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경 문제를 비롯한 기존의 안보 현안 역시 양국 관계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편, 중국의 브릭스 내 주도권 강화가 반드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직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중국의 리더십이 강화될수록 인도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정 국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브릭스는 단순히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체’라기보다는 중국의 리더십 강화 노력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상호 조정되는 다극적 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정책적 고려 사항

첫째, 브릭스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구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브릭스 회원국들은 각자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전략적 자율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브릭스 회원국들의 대외전략을 단일한 진영 논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브릭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영향력 관련하여 중국과 인도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관계 개선을 추진하더라도 이는 전략적 경쟁의 해소보다는 경쟁의 관리와 협력의 병행이라는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가 선택적 협력과 경쟁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국 관계의 변화가 브릭스의 의사결정 구조와 협력 의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는 향후 경제·기술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AI, 디지털 산업, 제조업, 인재 양성, 금융 등은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주요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과 경험은 우리나라가 제3국,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경제·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넷째, 브릭스의 영향력 확대를 단순히 반서방이라는 구도로 해석하기보다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요 강대국 및 세력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외교적·경제적 공간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는 중국이 브릭스를 활용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기술·제도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중국의 구상이 브릭스 전체의 공동 전략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향후 브릭스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브릭스는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원국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선택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브릭스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주요 협력 플랫폼인 동시에, 인도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브릭스를 중국이 주도하는 협력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브릭스 내부의 동학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